

뉴스 라운드업

- 미국 6 월 CPI +3.5%(전년비, 예상 +3.8%)·근원 +2.6%(예상 +2.8%) 예상 큰 폭 하회 — 에너지 가격 하락이 주요 원인, 미 국채 2 년물 -6.5bp·Fed 7 월 인상 확률 40%대 → 16%로 급락
- 미·이란 호르무즈 분쟁 재격화 — 이란, UAE 유조선 2 척 미사일 피격(인명 피해 발생)·미군 추가 공습·해상봉쇄 재개 → WTI +9.1%, 유럽 전력 선물 연중 최고치
- S&P 500 +0.38%, 나스닥 +0.90% 상승 마감 — CPI 서프라이즈에 JP 모건·골드만삭스 2 분기 호실적이 겹쳐 위험선호 유지, VIX 16.5 로 하락
- Fed 워시 의장 "물가안정 임무 미완" 발언 — CPI 직후 달러 약세 되돌림(DXY +0.28%), 금 장중 +2% 상승에서 -2.3%로 급반전 마감

CPI 서프라이즈가 주가와 금리를 들어올렸지만, 호르무즈 에너지 급등이 인플레 재가속 경고등을 다시 켜다

어제(7/14) 발표된 미국 6 월 소비자물가(CPI)가 시장 예상을 크게 밑돌면서 단기 위험선호 심리를 자극했다. 헤드라인 CPI는 전년비 +3.5%로 예상치(+3.8%)를 하회했고, 근원 CPI도 +2.6%로 예상(+2.8%)을 밑돌았다. 에너지 가격이 전월비 -5.7% 떨어지며 전체 둔화를 이끌었다. 이에 연방기금시장에서 Fed의 7 월 인상 확률은 발표 전 40%대에서 16%로 떨어졌고, 미 국채 2 년물 금리는 -6.5bp 내린 4.20%에 마감했다. JP 모건체이스와 골드만삭스가 2 분기 이익 예상치를 상회한 반면 IBM이 매출 가이드선 하향으로 약세를 보이는 등 실적 빅시즌의 엇갈린 신호 속에서도 S&P 500은 +0.38%, 나스닥은 +0.90%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다.

그러나 이날 흐름을 단순한 위험선호로 읽기는 어렵다.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다시 격화되면서 에너지 시장이 전혀 다른 방향의 신호를 보냈다. 이란이 아랍에미리트 소속 유조선 2 척에 미사일을 발사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, 미군은 추가 공습을 실시하며 호르무즈 해협 해상봉쇄를 재개했다. WTI 원유는 하루 만에 +9.1% 급등해 배럴당 78 달러에 마감했다. 이란이 홍해·아덴만을 잇는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새로운 압박 수단으로 꺼낼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, 에너지 공급망 차질이 중동을 넘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. 유럽에서는 독일 2027년 전력 선물이 2025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, 미 상원 민주당이 이란전 반대를 이유로 1조 1,500억 달러(약 1,570조 원) 규모의 국방 수권법안을 부결시키면서 정치적 교착 변수도 더해졌다.

이날 시장 흐름은 우리가 유지해온 핵심 관점, 즉 '6월 CPI 디스인플레이션 신호는 긍정적이나 에너지 재가속 위험이 이를 상쇄할 수 있다'는 판단과 부합한다. 특히 WTI 하루 9.1% 상승은 향후 에너지 기저효과가 CPI를 다시 밀어올릴 수 있음을 예고하며, 단기 CPI 서프라이즈로 형성된 금리 하락 기대가 구조적 인플레 압력을 과소평가한 것일 수 있다는 우려를 뒷받침한다. Fed 워시 의장이 CPI 발표 직후 "아직 물가안정 임무를 달성하지 못했다"고 발언하며 달러 약세를 되돌린 것도 이 시각을 지지한다. 금은 장중 2% 이상 오르다 결국 -2.3% 하락 마감했는데, 워시 발언에 따른 달러 회복과 트럼프 대통령의 '이란 제외 호르무즈 개방' 발언이 지정학적 위험 프리미엄을 일부 되돌린 결과로 풀이된다. 선물시장은 7월 동결(84%)을 기정사실화하면서도 9월 인상 확률을 59%로 반영 중이어서 '동결 후 재인상' 경로를 가리키고 있다. 오늘 발표될 6월 생산자물가(PPI)가 에너지 가격 급등 구간을 얼마나 담았는지가 단기 금리 경로 재설정 of 다음 관건이 될 것이다.

글로벌 주요 자산

2026-07-15 기준 · 직전 영업일 종가 대비

구분	자산	종가	전일 대비
주식	S&P 500	7,543.59	+0.38%
	나스닥	26,107.01	+0.90%
	STOXX 600	641.01	-0.01%
	닛케이 225	67,743.50	+0.74%
	CSI 300	4,796.50	+2.15%
	KOSPI	6,856.83	+0.73%
	항생	24,340.73	+0.52%
환율	달러인덱스(DXY)	101.23	+0.28%
	달러/엔	162.44	+0.46%
	유로/달러	1.14	-0.27%
	달러/원	1,497.96	-0.08%
	달러/위안	6.78	+0.05%
금리	미국 10 년	4.580%	-3.2bp
	미국 2 년	4.200%	-6.5bp
	일본 10 년	2.701%	-1.7bp
	독일 10 년	3.081%	-1.0bp
	한국 10 년	4.317%	+5.4bp
크레딧	미국 HY 스프레드	269bp	-
원자재	WTI	78.00	+9.08%
	금	3,997.40	-2.28%
	구리	6.23	-
변동성	VIX	17.16	+14.17%

권역별 뉴스 다이제스트

권역	요약
글로벌 · 교차자산 뉴스 9 건 HIGH	• 미국 소비자물가 예상 이하, 글로벌 주식 지수 소폭 상승·연준 금리인상 경로 불확실성 완화 ↳ MSCI 글로벌 지수 소폭 상승, 주요 은행의 2분기 실적 호조 병행 ↳ 미국 물가 예상 이하로 연준의 공격적 인상 가능성 축소,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확대 ↳ 다만 연준 월러 위원의 매파적(금리인상 선호) 발언으로 7월 인상 가능성 유지됨, 캐나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2.25% 동결 6연속 예상(15일) • 호르무즈 해협 긴장 격화로 유가 2일 연속 상승, 인플레이션 재점화 리스크 부각 ↳ 미국 트럼프 정부, 이란 해운 봉쇄 재개 선언 및 호르무즈 해협 통과 화물에 20% 관세 부과 제안 ↳ Hapag-Lloyd 등 글로벌 컨테이너선사의 강한 반발('근본적으로 잘못된' 정책 평가)로 정책 실행 가능성 불투명 ↳ 유가(브렌트유) 2일 연속 상승으로 에너지 공급 차단 우려·인플레이션 재점화 리스크 부각 • 달러약세·금·상품 강세로 교차자산 헤징 심화 ↳ 미국 물가약화에 따른 달러 약세 진행, 채권수익률 동반 하락 ↳ 금 가격 상승, 캐나다 자재·광물주(TSX 자재섹터 +2.2%) 강세로 약달러 환경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연동 ↳ 글로벌 투자자의 인플레이션·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헤징 수요 증가 • 쉘, 캐나다 ARC 리소스 164억달러 인수 주주승인 완료 ↳ ARC Resources 주주총회에서 99.54% 찬성으로 인수합병 최종 승인, 캐나다·미국 경쟁당국 사전 승인 완료 ↳ 쉘의 북미 천연가스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한 2026년 주요 에너지섹터 거래 중 하나

권역	요약
미국 뉴스 108 건 HIGH	• 6 월 미국 소비자물가 예상치 크게 하회, 연준 7 월 금리인상 가능성 15% 이하로 급락 ↳ 6 월 소비자물가지수(CPI) 전년동기대비 3.5% 상승(시장 예상 3.8%)·전월 대비 0.4% 하락(예상 0.1% 하락), 핵심 물가(식료품·에너지 제외)는 전년동기대비 2.6%(예상 2.8%)·전월 불변(예상 0.2% 상승) ↳ 에너지가 전월 대비 5.7% 하락하면서 물가 낙폭을 주도, 연준 7 월 금리인상 가능성 선물시장 기준 40%대 초반에서 15% 이하로 급락, 9 월 인상 확률은 90%대 초반에서 70%대로 하향 ↳ 연준의장 Kevin Warsh 의회 증언: 연준이 물가 안정 목표 충족하지 못했으며, 기준금리 인상 중단 시점까지 수개월간 물가 둔화 지속 필수라는 입장 표시, 미국 국채 수익률 하락·단기금리선물 급등 • 미·이란 교전 재개, 호르무즈 해협 공급 우려 확산으로 유가 월간 최고점 근처 상승 ↳ 미국 중앙사령부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 단행(연일 진행 중), 트럼프 대통령 이란 해상 봉쇄 재개·호르무즈 해협 통항료 20% 부과 제안 ↳ 분쟁 이전 글로벌 석유공급의 약 20%가 호르무즈 해협 경유, 공급 차질 우려 급증으로 유가 약 2% 상승해 월간 최고 수준 근처 도달, 브렌트유 3 월 이후 처음으로 이틀 연속 상승 ↳ 유럽항공안전청 중동 항공로 경고 강화(바레인·쿠웨이트·카타르·UAE·오만 상공 회피 권고), 걸프 지역 주요 증시 대부분 하락(두바이 -1.3%) • 인플레이션 약화로 위험자산 선호 회복, S&P500 0.38%·나스닥 0.90% 상승 ↳ 대형 금융회사 실적 호조 주도: JPMorgan 2 분기 영업이익 상회·Goldman Sachs 도 예상치 초과, 반면 IBM 은 수익 전망 하향, 반도체 주가 반등으로 나스닥이 상승 주도 ↳ 라틴아메리카 주가지수 1.3%·현지통화 0.7% 상승하며 월간 최고점 근처 도달, 약화된 달러(금리인상 가능성 축소 반영)와 상승한 원자재 가격(유가·금값 상승)이 자원풍부 신흥시장 지지 • 연준 금리인상 지연 전망에 현물금 2% 상승, 미국 달러 0.6% 약세 ↳ 현물금 온스당 \$4,063 부근 상승(1.6~2% 상승 폭, 7 월 1 일 이후 최저점에서 반등), 미국 달러 0.6% 약세로 진행 ↳ 금리인상 가능성 축소로 금(무이자 자산)의 기회비용 하락, 달러화 표시 원자재의 상대적 매력 향상 • Warsh 연준의장, 근 20 년간 운영해온 '풍부한 준비금' 금융정책 체제 검토 착수 ↳ 연준 자산규모 현재 \$6.8 조, 최근 약 \$2.2 조 축소 진행, 검토는 대규모 채권 보유 연계 '풍부한 준비금 체제(ample reserves regime)'를 중심 대상 ↳ 위기 이전의 '준비금 부족 체제(scarce reserves system)'로의 완전 복귀는 가능성 낮다는 입장

권역	요약
유럽 뉴스 9 건 HIGH	• 영국 인플레이션연동 국채, 2.0792% 수익률로 20 년 만에 최고 기록 ↳ £47.5 억(약 \$63.5 억) 규모, 주문액 £607 억으로 12 배 이상 초과수요 기록 ↳ 2038 년 만기 1.75% 인플레이션연동 길트(GBIL1T38) 공모 방식, 2005 년 신디케이트 공모(syndicated offering) 이래 최고 수익률 • 유럽 전력·가스 가격 급등, 호르무즈 긴장 에너지 공급 리스크로 부상 ↳ 독일 2027 년 기저부하 전력 선물(baseload) €101.30/MWh 로 2025 년 2 월 이후 최고 수준, 전일 1.71% 상승 ↳ 가스 가격 3 개월 최고치 경신, 이란-미국 호르무즈 해협 분쟁 재개로 에너지 공급 불확실성 확대 • 독일 2 년물 수익률 2 년래 최고, 에너지 인플레이션 우려로 유럽중앙은행(ECB)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시장 반영 ↳ 2024 년 7 월 이후 최고 수준 경신, 중동 분쟁 확대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 재악화 우려 야기 ↳ 단기금융시장, 12 월 ECB 기준금리를 2.68% 수준으로 반영 중, 하반기 추가 인상 가능성 확대 • BoE 총재 Bailey, 광범위 규제 완화 반대·호르무즈 긴장 금융안정성 위험 언급 ↳ Mansion House 연설에서 규제 완화 요구를 '지나치게 단순화된 접근'으로 평가, 영국 경제를 '상당히 약세'로 진단 ↳ 호르무즈 분쟁 재개에 따른 금융안정성 리스크 증가 우려 표명, 은행 체계는 회복력 있으나 지정학적 긴장 모니터링 필요 강조 • 영국, 2027 년 초 디지털 국채 첫 발행 계획—선진국 중 선도 ↳ 재무장관 Rachel Reeves, Mansion House 연설에서 발표, 2024 년 공개한 파일럿 기반으로 추진 ↳ 분산원장기술(DLT) 활용으로 자본시장 효율성 개선 및 금융기관 비용 절감 목표 • FTSE 100 0.3% 상승 마감, 미국 은행 실적 호조·인플레이션 둔화 지표 호재 ↳ 종가 10,529.39, 장중 10,422.98 까지 약세 후 반등, 미국 은행주 선전 견인 ↳ FTSE 250 중형주 지수는 0.7% 하락, 미국 은행 2 분기 실적 개시 및 인플레이션 둔화 지표로 금리 인하 기대감 상승 • 파운드, 달러 대비 0.24% 상승 \$1.3378—호르무즈 유가 급등은 에너지 수입국 영국에 악재 ↳ 달러 1 년 최고치 이후 차익 실현 움직임, 유로 대비 보합, 달러 강세 조정 국면 ↳ 호르무즈 해협 분쟁으로 유가 급등, 에너지 수입국 영국의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으로 파운드에 약세 요인

권역	요약
인도 뉴스 5 건 HIGH	• 미-이란 분쟁 재격화로 유가 급등, 인도 시장심리 악화·자산가격 조정 ↳ 미국이 이란 해상봉쇄 재 실시·연쇄 공격(월요일부터 사흘 연속)으로 호르무즈 긴장 고조, 브렌트유 +4% 상승해 배럴당 \$87 ↳ 10년물 국채(6.94% 2036) 수익률 +6.4bp로 6.7945%, 6월 24일 이후 3주 최고 ↳ 루피 1개월 만에 최저, -0.61% 하락해 96.20 루피/달러(RBI 개입 추정), 장중 저점 96.2375 루피/달러 • 6월 인플레이션 온건하자 금리인상 기대 축소 ↳ 6월 소매 인플레이션 4.38%, 4월-6월 분기평균 3.9%, 코어 약 4% ↳ RBI 목표 4%를 17개월 만에 소폭 상회했으나 분기평균·코어는 온건한 수준 ↳ Citi, Nomura 등 이코노미스트가 실물 인플레이션 약화에 따라 루피 지원·인플레이션 억제 목적의 즉시 금리인상 기대 축소 • 강제노동 상품 수입금지 공시, 미국 12.5% 관세 회피 추진 ↳ 인도 무역부 14일 공시(실제 발령 13일)로 강제노동 생산 상품 수입금지 권한 부여 ↳ 미국이 강제노동 미규제 국가로 분류한 인도 등에 최대 12.5% 관세 부과 제안 중, 인도의 선제적 대응

권역	요약
EM 기타 뉴스 16 건 HIGH	•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 — 이란 미사일 탱커 타격, 글로벌 에너지 공급 위기 심화 ◦에미리트 유조선 2 척(Mombasa B, Al Bahyah)이 이란 순항미사일 직격으로 화재 발생, 인도 선원 1 명 사망·8 명 부상·3 명 실종(오만 수역) ◦브렌트유 1 개월물이 6 개월물을 배럴당 \$8.92 로 상회(6 월 10 일 이후 최대), 콘탱고(원월물 고가) 구조에서 백워데이션(근월물 고가) 구조로 전환 ◦이란,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 폐쇄 위협으로 글로벌 에너지·해운의 2 대 해상 요충지 동시 봉쇄 가능성 부각 • 우크라이나, 아조프해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곡물 수출 1/4 차단 — 글로벌 식량 공급 우려 확산 ◦아조프해 해상 운송 7 월 10 일 이후 제한 상태, 우크라이나 드론 9 일간 116 척 타격(전야 11 척 추가) ◦EU 밀값 €216.50/톤(+0.8%) 상승, 러시아 곡물 수출 주요 경로 폐쇄로 국제 곡물 공급 긴장 심화 ◦수단 500 만 명 극심한 기아·WFP 원조 150 만 명 축소, 호르무즈·아조프해 혼란·지역 전쟁으로 인도주의 위기 악화 • 우크라이나 젤렌스키, 총리 스브리덴코 1 년 만에 교체, 개각 이유 미설명·의원 불만 제기 ◦40 세 경제학자 스브리덴코 의회 승인으로 사임 처리, 후임 목요일 임명 예정 ◦겨울 난방·에너지 대비 등 정책 개편 예상, 일부 의원 '개각 이유 불명확' 우려 표시 • 이집트 의회, 군부 연계 경제기구 권한 공식화 — 상전자·농업·투자 국가경제 핵심 집중 ◦이집트 미래 기구(Future of Egypt Authority), 2017 년 토지 개간 프로젝트에서 국가경제 거대 기구로 확장, 상전자·농업·어업·부동산·투자 관리권 통제 ◦시시 대통령 직접 감시 아래 IMF 협상 진행 중 법안 가결, 국방부와 함께 이집트 경제 주요 의사결정 기구로 부상 • 레바논·이스라엘, 로마 미국 대사관에서 평화협상 개시 ◦미국 중개 협상 진행, 이스라엘의 남부 철수 진전 목표 ◦호르무즈 긴장 고조 와중 중동 평화협상 진행 • 앙골라 중앙은행, 기준금리 125bp 인하해 15.75%로 조정 — 인플레이션 완화에 지속 판단 ◦6 월 인플레이션 10.11% YoY(5 월 10.88%, 전년동월 19.73%), 가격 안정화 추세 확인 ◦5 월 50bp 인하 이후 추가 조정,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통화완화 정책 지속 • 푸틴 '러시아 기준금리 인하는 거시지표 기반의 자연스러운 과정' ◦현 기준금리 14.25%, 기업·은행가들의 빠른 인하 압박 중 ◦푸틴 인터팩스 발언 '거시경제 지표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' • 폴란드 5 월 경상수지 -10.7 억 유로로 개선 — 4 월(-15.4 억) 대비 적자 축소 ◦5 월 예상(-16.7 억 유로) 대비 상회하는 적자 축소 • 신흥시장 통화, 호르무즈·Fed 매파·CPI 인상 기대로 동시 약세 압력 ◦트럼프 '이란 해상 봉쇄 + 호르무즈 통항료 20%' 계획과 월러(Fed) 매파 발언으로 7 월 인상 기대 상승 ◦미국 CPI 발표 임박, 신흥시장 통화 약세 확대 — 헝가리 포린트 EUR/HUF 360 회복, 에너지 가격 상승 악영향 부각

권역	요약
중국 뉴스 1 건	• 중국 상반기 수출 10% 이상 증가, 11 분기 연속 성장 — AI 수요 견인 ↳ 14 일 중국 관세청 부장 왕준 발표 ↳ 글로벌 AI·기술 제품 수요 강세를 배경으로 한 성장 지속, 중국 수출의 회복 탄력성 재확인
브라질 뉴스 2 건	• Oncoclinicas 51 억 레알 채무 재조정 신청 ↳ 무담보 금융채와 관계사 채무를 협의형 재조정으로 처리, 정식 파산절차 회피 ↳ 올해 들어 브라질 내 같은 경로를 선택한 기업 33 개사, 채무 협의 방식의 확산 • 라틴아메리카 자산 상승, 미국 인플레이션 약화 배경 ↳ 라틴아메리카 주가지수 +1.7%, 현지통화 +0.7% (1 개월 고점 근처까지 회복) ↳ 미국 6 월 소비자물가 예상 하회로 연준 추가 금리인상 기대 축소, 달러 약화로 이어짐 ↳ 상품가격 동반 상승도 자원 수출국인 라틴아메리카 지원, 아르헨티나 인플레이션 발표 대기
남미 기타 뉴스 3 건	• 아르헨티나 6 월 월간 인플레이션 1.9%로 3 개월 연속 약화 ↳ 월간 지표 5 월 2.1%에서 6 월 1.9%로 하락, 시장 예상 부합 ↳ 12 개월 누적 인플레 33.5%, 5 월 33.2%보다는 높으나 시장 예상 33.6%보다는 낮음. 다만 절대 수준은 여전히 극도로 높음 ↳ 여가·문화 부문 가격상승 최대 견인, 휴가 패키지 비용 인상
프론티어 뉴스 1 건	• 리투아니아 신임 총리의 대만 정책 재평가 발언 — 중국과의 관계 회복 신호 ↳ 어제 저녁 신임 총리 Sinkevicius 의 부임 첫날 발언 — 2021 년 대만 대표부 개설 결정을 '과도했을 가능성' 지적하며 정책 입장 전환 ↳ 중국의 2021 년 말 외교 관계 강등 및 무역 제재 시행 — 리투아니아의 대만 정책 전환에 대한 대응 조치 ↳ 중국 측의 '소통 문호 개방' 입장 표시 (리투아니아는 인구 290 만 EU·NATO 회원국)

출처: Reuters,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Compliance Notice

금융투자업규정 4-20 조 1 항 5 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,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. (담당자:조재운)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 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본 자료는 인공지능(AI)을 활용하여 자동 생성되었으며,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.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.